

# 전남개발공사, 곡성중앙초와 '미래동행 사회공헌활동'

문화·진로체험·통학로 안전관리 업무협약  
학생 그림그리기 작품 반영 공간 개선도

전남개발공사가 곡성군 청년주택 사업과 연계해 초등학생 통학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미래동행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1시 교장실에서 열렸으며, 공사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곡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곡성형 청년 하우징 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곡성을 읍내리 일원에 대지 면적 5789㎡, 연면적 3549㎡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2개동 55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생 참여형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 건축학교, 교육기부 기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공사현장 인근 통학로와 보행로 점검, 환경 관리도 함께 추진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학생 참여를 반영한 공간 개선도 진행된다.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공사현장 외부 가설펜스 디자인에 적용해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경관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장중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발사업과 연계한 미래세대 중심 지역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21일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미래동행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교통공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배출 하남태·이하연 대리...공사, 기능장 24명 보유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최근 실시된 제79회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차량팀 소속 하남태 대리와 이하연 대리가 철도차량정비기능장에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차량정비기능장은 철도차량 정비 및 검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에게 부여되는 국가자격으로, 철도 안전 운행을 위한 핵심 전문 인력으로 평가됐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철도차량 정비제도 강화 추세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거둔 결실로, 공사가 신규 전동차 정비 기술력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공사 차량팀은 철도차량기술사 1명을 포함해 철도차량정비 및 전기기능장 등 총 24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게 됐다



하남태 이하연

며, 2호선 개통에 대비한 전동차 정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문석환 공사 사장은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학습문화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공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자치경찰, 빗고을 자전거 순찰대 출범...시민밀착형 치안 강화

'제5기 순찰대' 45명 위촉  
공동체 치안 문화 확산 기대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5기 빗고을 자전거 순찰대' 위촉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빗고을 자전거 순찰대'는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안전 시각지대를 살피는 시민참여형 협력모델이다. 제5기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5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대원들에게 위촉장과 순찰 장비를 전달했으며,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범죄 예방 수칙 및 사고 발생 때 신고 요령 등 직무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순찰대는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골목길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5기 빗고을 자전거 순찰대' 위촉식을 열었다.

등 순찰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구역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들은 노후하거나 파손된 방범 시설물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개선요청하고,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목

격할 경우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하는 등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찰 활동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코레일 광주본부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코레일 광주본부

## 코레일 광주본부,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

코레일 광주본부는 철도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캠페인에는 국가철도공단, 교통안전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 송정역 일원에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열차 탑승 시 하차

승객 우선 등 혼잡 구간에서의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또 현장 홍보물 배부, 안내문구 표출, 안내방송 등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역사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상황 대응·조치 방법 교육을 병행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추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 "미술관 아카데미 두번째 순서 오세요"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조은정 초빙교수 강의

'미술사' 안목을 오가며 명맥을 유지했지만 정례화되지는 못했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의 2026 미술관 아카데미 두번째 순서 '예향의 맥(脈): 한국근현대 미술 속 광주를 읽다' 강좌가 22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8일 열렸던 1강 '근대를 열다-시각 체계의 변화'에 이어 마련된 이번 두번째 강의는 '희망과 고난의 소용돌이에서-광복과 전쟁, 재편되는 미술계'라는 타이틀로 이화여대에서 미술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근현대미술학회 회장을 역임한 미술사학자로서, 개화기 이후 한국미술과 서양미술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조은정 초빙교수(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가 맡는다. 이번 2강에서는 1945년 광복이 불려온

민족미술의 열망과, 1950년 한국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 속에서 재편돼 간 한국 미술계의 모습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특히 광복 직후 미술인들이 꿈꾸었던 민족미술의 이상, 그리고 전쟁을 거처며 이념이 작가의 삶과 작품 평가를 가르는 잣대로 작용하게 된 상황을 짚어본다. 나아가 월북과 월남으로 분화된 중앙 화단의 격변과, 빨치산 활동을 통해 기록된 지역 미술계의 움직임에 견주어 보며, 희망과 고난이 교차하던 시대 속 화가들의 선택과 그의 미술 되새겨 볼 수 있다. 강의자인 조은정 초빙교수는 1994년 구상조각회 조각평론상과 2013년 석남회 기리는 미술이론기상 등을 수상했으며, 주요 저서로 '한국조각의 발견', '권진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공저), '김



지난 8일 열렸던 1강 '근대를 열다-시각 체계의 변화' 강의 모습.

복진의 예술세계'(공저) 등이, 주요 논문으로 '한국전쟁기 북한미술인의 전쟁 수행역할에 대한 연구', '1950년대 전반기 한국미술에서 타자 읽기' 등이 있다. 윤익 관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근현대미술의 큰 틀 속에서 한국미술과 광주·전남 미술을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광주시립미술관은 앞으로도 미술을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강좌를 꾸준히 마련하겠

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좌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무료 운영된다. 사전에 약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s://artmuse.gwangju.go.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도 함께 받는다. 문의 062-613-7138.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게시판

- 모임** △공군전우회 광주시지부 2026년도 정기 총회=4월 28일(화)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2층 갈비연. 광주·전남·전북 공군예비역 누구나. 문의 010-2115-0945.
- 일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 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 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뜰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은세 (음력 3월 6일)

- 48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헛수고다
- 60년생 걱정은 금물·과감히 처리하라
- 72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보람이 있다
- 84년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온다
- 96년생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한다
- 51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을 알라
- 63년생 제3자 인연 부부 갈등이 시작 된다
- 75년생 같이 있다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 87년생 뜻한 바를 확실하게 해 나가라
- 99년생 합치고 보자
- 54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 66년생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하겠다
- 78년생 지금은 도움을 받아들이어야 할 때
- 90년생 사회생활에 대인관계도 중요하다
- 57년생 뒤따르는 이가 보이니 조심한다
- 69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 81년생 긴장을 풀지 마라
- 93년생 수입이 늘거나 횡재수가 있다
- 49년생 술하에 근심 있고 집안이 흔들린다
- 61년생 소금 말려 갈려나까 비가 내리는 격
- 73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절실하다
- 85년생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마라
- 97년생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추하다
- 52년생 사상누각에 불과하니 기대 말라
- 64년생 서두르지 않으면 그 재물 귀하 것이다
- 76년생 두 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운
- 88년생 말만 조심하면 탄탄대로
- 55년생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라
- 67년생 천천히 진행해야 장애가 없다
- 79년생 도박으로 이길 확률이 희박하다
- 91년생 언젠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라
- 58년생 귀하가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말라
- 70년생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 82년생 동시에 처리되니 혼동하지 마라
- 94년생 시험 운이 좋으니 근심치 마라
- 50년생 귀하가 먼저 도와줘야 한다
- 62년생 돈소문이 매우 유익한 정보다
- 74년생 해결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 86년생 절대적이라고 하면 오산이다
- 98년생 쉽게 해결될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라
- 53년생 변형시키려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 65년생 일단 맛없는 것부터 먹여라
- 77년생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 89년생 철저부심하게 된다
- 56년생 사형선 있는 일에 손대지 마라
- 71년생 사팔귀경,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83년생 성공에 청신호가 켜져있다
- 92년생 인내로 기다리면 길이 밝아진다
- 59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 71년생 사팔귀경,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 83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린다
- 95년생 용돈이나 혹은 상을 받을 수 있다